

이창동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 심사위원대상 ‘오디세이’ 이을 한국 영화는…

‘피에타’ 이후 14년만 경쟁부문 캐거… 이 감독 24년만 영예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 질문하고자… 국제비평가연맹상 받아 황금사자상엔 ‘우먼 언노운’… 다큐 ‘나자’ 심사위원특별상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국제영화제 2등 상인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가능한 사랑’은 현지시간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 (영화의 궁전)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대상 (은사자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한국 영화가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다. 심사위원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감독이 베네치아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 (은사자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오아시스’는 이 감독의 감독상과 함께 주연 문소리에게 신인 배우상을 안겼다.

이 감독은 수상대에 올라 “수많은 사람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었으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특히 영화를 기다리느라고 매일 술을 마셔야 했던 제

작자 이준동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

이어 “이 영화에 생명력을 준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네 분에게 감사드린다. 이 상은 여러분들의 것”이라며 주연 배우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 감독은 10여 년 전 해고 노동자 문제를 다룬 영화를 만들려다가 제작 준비 단계에서 접었고, 이야기는 오랜 기간을 거쳐 ‘가능한 사랑’으로 완성됐다. 이준동 파인하우스 필름 대표는 이 감독의 전작 ‘시’ (2010), ‘버닝’ (2018) 등을 만든 제작자로 이 감독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 감독은 “노동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시대에 저는 영화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화가 무엇이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며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가능한 사랑’은 이 감독이 ‘버닝’ (2018)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제83회 베네치아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이창동 감독.

연합뉴스

신작이자 첫 넷플릭스 영화로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이 출연했다.

부유한 남편 (조인성 분)을 둔 다큐멘터리 감독 (조여정)이 해고 노동자 부부 (설경구, 전도연)의 삶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계급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서로의 삶과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 6일 베네치아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이후 7분간 기립박수를 받았고, 외신들의 호평도 쏟아졌다.

심사위원인 홍콩 영화의 거장 두 치핑 (두기봉) 감독은 폐막식 뒤 기자회견에서 “이창동 감독작 중 가

장 원숙한 작품”이라며 “영화에 담긴 모든 디테일을 좋아한다. 나라면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영화는 폐막식에 앞서 국제비평가연맹 (FIPRESCI)상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이 감독은 2002년 ‘오아시스’의 문소리에게 베네치아영화제 신인배우상을, 2007년 ‘밀양’의 전도연에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긴 데 이어 2002년 베네치아영화제 감독상 (‘오아시스’), 2010년 칸영화제 각본상 (‘시’), 이번에 심사위원대상까지 받으며 한국의 대표 거장임을 다시 증명했다. 연합뉴스

최민식·유해진·변요한 나서 ‘인턴’·‘암살자(들)’·‘타짜’ 등 추석 극장가 흥행 경쟁 치열

영화 ‘오디세이’·‘스파이더맨: 브랜즈 뉴 데이’ (이하 ‘스파이더맨 4’) 등의 외화가 휩쓴 여름 극장가를 지나 각각각색의 한국 영화가 그 뒤를 잇는다.

최민식 주연의 리메이크 작품 ‘인턴’, 현대사를 다룬 유해진의 ‘암살자(들)’,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변요한의 ‘타짜: 뱀체첩의 노래’ 등이 추석 연휴를 비롯한 가을 극장가를 두고 겨룬다.

가장 먼저 출격하는 작품은 오는 16일 개봉하는 ‘인턴’이다.

2015년 개봉한 동명의 할리우드 영화를 원작으로, 30여 년 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기호 (최민식 분)가 패션 스타트업 우투투에 실버 인턴으로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는 원작처럼 기호와 우투투를 이끄는 3년 차 최고경영자 선우 (한소희)의 우정에 초점을 맞췄다. 어색한 사이였던 둘이 세대와 직위를 뛰어넘어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여정을 따뜻한 감성으로 담았다.

올해 ‘만약에 우리’로 260만명 이상을 동원한 김도영 감독이 연출했다.

‘암살자(들)’과 ‘타짜: 뱀체첩의 노래’ (이하 ‘뱀체첩의 노래’)는 23일 개봉한다.

‘암살자(들)’은 1974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생한 영부인 저격 사건의 실체를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실제 발생한 옥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점이 먼저



서울의 한 영화관.

연합뉴스

관심을 끈다. 1974년 당시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총을 쏘고, 옥영수 여사가 사망했다.

영화는 실제 역사에서 남겨진 의문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진실을 추적하는 서사를 만들었다. 미스터리 스릴러에 가까운 장르적 특성에 역사물을 결합해 현대사의 이면을 조명한 점이 흥미 요소다.

‘8월의 크리스마스’ (1998)와 ‘봄날은 간다’ (2001) 등의 멜로 영화로 이름을 알린 허진호 감독이 연출했다.

‘뱀체첩의 노래’는 이름이 같은 두 친구 장태영 (변요한)과 박태영 (노재원)의 우정과 복수를 그렸다.

2006년 조승우 주연의 ‘타짜’로 시작된 시리즈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허영만 화백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했다.

영화는 앞선 1~3편 모두 추석에 개봉한 성인 오락물이었다는 정체성을 이어받았다.

장태영에게 포커를 가르치는 스승役に 조우진, 살인청부업자역에 윤경호와 문지훈 (래퍼 스웝스)이 등장해 극에 안정감과 활기를 불어넣는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2018)을 연출한 최국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연합뉴스

대중음악 파고든 인공지능… AI 탐지 프로그램 공동 도입

음저협 등 6개 단체
업체 선정 막바지

인공지능(AI)이 사회 각계를 넘어 대중음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가요계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AI 활용 음악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달 일정 조건 아래 AI 활용 음악의 등록 허용 방침을 밝혔다가 22일 만에 이를 철회한 가운데, 앞으로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AI 인공지능.

연합뉴스

가요계 일각에서는 미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인간의 창작 기여가 있는 AI 생성 음악의 등록을 허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관련 방침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음저협을 비롯한 가요계 6개 단체는 지난 7월 AI 디렉션(탐지) 프로그램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 제안서 제출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는 음저협은 물론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등 6개 가요계 주요 단체와 플랫폼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업체 선정 요건으로 ▷AI 생성 음악 및 AI 활용 음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 ▷음원 분석, 식별 결과 산출 및 결과 확인 기능 제공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에서 음원을 전송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능 제공 ▷세부 분석 내용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음저협 등은 공고 절차를 거쳐 업체 선정을 위한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요계에서는 AI 활용 음악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흐름이 된 만큼, 관련 단체들이 식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이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I 활용 음악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정식 음원’으로 유통되고 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동행 (재)	6:05 TV 유치원 (재) 6:35 바다 건너 사랑 6(재) 7:30 코넬리 대한민국 (재)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욕망의 달 (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사정남 귀는 당나귀 귀 (재) 11:45 토티미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 (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보 좋아좋아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재) 11:45 토티미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블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1:00 보석아네 건강 수다	8:20 한글용사 이야기 9:40 부모의 첫 성교육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극한직업 13:25 자식살레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35 꼬마미방사 주니토니 17:10 페퍼 피크 18:20 고향민국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넷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4:00 KBS 뉴스 14:10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6:00 사시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40 영화가 좋다 (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도깨비 연애의 왜 왔니? (재) 16:00 TV 유치원 16:30 세상의 모든 다큐 17:20 스튜디오 K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5 MBC 특별생방송 네팔 대홍수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재) 13:55 2시 뉴스 오전 15:55 2시 뉴스 낮 (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베베핀 17:30 가족관계증명서 (재)	12:00 SBS 12 뉴스 12:45 안년 자두야 6 13:00 오늘부터, 인생 2막 (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6:00 탈탈레 17:00 JIBS 저녁뉴스 17:10 시사이슈 결 (재)	9:00 KCTV 9시 뉴스 9:30 수중돌래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KCTV 스페셜 13:00 이슈토크 팜 14: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5:20 수중돌래 16:00 삼다공원 아간콘서트 17:20 네트워크 전국발굴 18:00 삼촌 명심합서에 19:00 KCTV 종합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일일연속극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라인W 23:35 인생이 영화 (재)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욕망의 달 20:30 다큐멘터리 3일 21:30 팔자소 23:00 어는 나고야 [축구] 여자 F조 1차전 대한민국:미안마	18:05 오늘N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2:40 심아미담회 6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현타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10 내 남은 연애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행가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4일

김종상 지단(組頭)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동 교수(010-5233-6136)

36년 건강에 이상이 오니 휴식이 필요하다. 48년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강하다. 형제간 대화가 필요하다. 60년 자녀문제로 애·경사가 있거나 소식이 오면 상면하라. 72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에 전념하라. 84년 반가운 소식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있다.

37년 불필요한 선심이 상대의 오해와 후회를 갖는다. 49년 한가지 일로 꾸준함이 남의 칭찬과 인정을 얻는다. 61년 좋은 일과 굶은 일이 교차하니 취할 것은 취하고 피할 것은 피하라. 73년 신경이 날카롭다. 주위에 민감하고 혼자 있을 기분이 든다. 85년 친구나 동료간 불화가 올 수 있으니 상처주는 말은 삼가하라.

38년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거나 내가 방문을 하게 된다. 50년 동료나 거래처 관계인의 만남이나 모임에 참석한다. 62년 시댁 어른이나 처가에 방문이 있거나 외출 등 여행을 한다. 74년 직장이나 취업에 대한 소식이 있으며 할 일이 생긴다. 86년 어떤 일이나 기다림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함이 지체된다.

39년 처방전의 효과가 미흡하나 마음의 안정은 있다. 본인 의지가 중요. 51년 실인 또는 실수가 따르니 대화 시에는 언행을 조심. 63년 이사 변동 또는 집내부 변화를 주려 하고 몸이 분주. 75년 불필요한 외출이나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87년 이성교제 또는 만남 약속이 생긴다.

40년 경쟁하거나 다투지 마라. 내가 불리하다. 52년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일이 막힌 상황이 일어 호전된다. 64년 내게 타고난 직업에 대해 가끔씩 고민해 보고 바꾸고 싶다. 76년 창업이나 일을 꿈꾼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88년 이성이 다가오고 직장인은 상사의 칭찬도 따른다.

41년 동료나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다. 53년 배반, 배신수가 따르니 행동에 신경 쓸 것. 65년 원행 또는 출타할 일이 생기고 직장인은 승용을 중지해야. 77년 직장인에게 실직, 이통 또는 재취업에 대한 일이 발생하니 신경을 써라. 89년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형국. 하나에 치중해 집중할 필요가 있는 날이다.

42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것이 좋다. 54년 불필요한 연쟁이 커지니 자제. 66년 새로운 투자나 업무를 추진할 때, 기회가 주어지면 강하게 밀어붙여라. 78년 활동량이 많아지고 외출이나 모임에 참석하러 된다. 90년 조급하면 오히려 일이 막히니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43년 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빈축을 산다. 55년 투자나 자금출수에 어려움이 있다. 보충설정 주의. 67년 마음이 맞지 않거나 사소한 일에 민감하다. 79년 업무나 직장관련 일로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협조를 요청하라. 91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기니 신중함이 필요하다.

44년 기대를 크게 하는 것보다 현실에 충실. 56년 희망과 큰 야망은 현실의 괴리감을 얻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68년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일로 가정이 시끄럽거나 부부 애정문제는 적신호. 80년 동료나, 친구, 형제자매의 불협화음이 있고 이성교제는 적신호. 92년 갑연이설에 고민. 보충 서면 불리하다.

45년 개인사업은 늦게까지 바쁘거나 일이 있다. 57년 사소한 시비는 피하는 것이 상책. 운전조심. 69년 친지 어른이나 거래처의 문제로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81년 다투거나 경쟁을 하지마라. 진정한 승부는 다음으로 연기하는 지혜 필요하다. 93년 자녀 또는 문서상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46년 원칙에 충실하면 주변에서 인정 받는다. 58년 업무와 일에 성과가 있으며 인정을 받는다. 70년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나누어라. 82년 미혼자에게 중매 또는 이성교제가 찾아온다. 94년 기회가 오면 결정을 신속히 하라. 여기에 이득이 있다.

47년 자식의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59년 문서상이 길하며 부모님이나 윗분의 도움이 있다. 71년 동료나 형제자매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다. 그들의 지혜를 얻어라. 83년 취업이나 업무가 늘어났고 기쁨이 있는 임신, 출산 또는 기쁨이 있다. 95년 나눔과 양보가 큰 힘이 되는 때.